

3.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賞),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賞) 수상자



전주고 총동창회에서는 개교 80주년을 맞은 1999년 6월16일부터 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과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을 제정, 시상해오고 있다.

시상 대상 동문은 동창회 정회원으로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둬 모교 명예를 빛내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문을 선정해 그간 노력을 격려하고 공적을 전체 동문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상자 선정은 총동창회 회장이 심사위원회 의장이 되며, 총동창회 운영위원회와 (재)전고·북중총동창회장학회 합동회의에서 위원 4명을 선출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전원 합의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은 매년 동문 1~2명에게,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은 매년 2~4명에게 각각 시상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시상 첫해인 1999년(개교 80주년)에는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은 2명,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은 13명을 선정 시상했다. 개교 100주년을 맞은 2019년에는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은 2명,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은 8명을 선정해 각각 시상했다.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수상자에게는 금 10돈중 상당의 메달과 금 3돈중 상당의 배지 및 은쟁반(120돈) 상패를,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수상자에게는 금 3돈중 상당의 배지와 은쟁반(120돈) 상패를 제작해 시상하고 있다.

역대 수상자 프로필과 공적은 다음과 같다.

1999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賞)

▲**한승헌(30회)** 대학 재학 중 고등고시에 합격,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하는 동안 강직하고 청렴 결백한 법조인으로 일관했다. 특히 1960년 이후 계속된 군사독재 치하에서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재야변호사로 꺼져들어가던 민주주의에 횃불을 밝힌 민권 변호사이자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군사독재정권에서 박해받던 양심수와 시국사범을 변호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던 중 반공법 위반 필화사건과 소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21개월간 투옥되기도 했다.



한승헌 동문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감사원장을 맡아 부정 부패 척결과 감사기능의 공정 수행으로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고향과 모교 사랑도 각별하여 중요행사에 빠짐 없이 참석하며 전북인과 전고인의 명예와 권위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임병찬(34회)** 1965년 전주문화방송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보도국장과 상무이사를 거쳐 여수문화방송과 전주문화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이어 전북도민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퇴임시까지 52년간 언론계에 몸담아 언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



임병찬 동문

에 앞장서 모교와 동창회 명예 및 위상을 크게 높였다.

또한 투철한 사명의식과 봉사정신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 장애인 먼저 전북 실천협의회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과 중앙위원, 건강관리협회 전북 지부장, 지역발전위 대통령직속 자문위원,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을 맡아 지역사랑을 실천했다. 이같은 공로로 국민포장(대통령), 적십자사 광무장 금상, 석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어려운 처지의 후배들에게 30여년간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모교 제 11, 12대 총동창회장을 맡아 임기 중에 동창회관을 건립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賞)

▲**김석환(3회)**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한 뒤 당시 서울에 유일한 사립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암센터까지 병설, 한국 의료계의 선구자로 의료수준 향상과 의술 발전에 크게 공헌해 모교 위상과 명예를 크게 높였다. 건국 후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제2대 재경 동창회장을 맡아 동문들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임남수(12회)** 일본 중앙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체신부에 공직 입문, 체신부 차관에 이르기까지 줄곧 체신부에 근무하면서 한국 체신사업이 세계적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초석을 다졌으며 모교 명예를 크게 높였다. 제3대 총동창회장을 맡아 동창회 활성화와 모교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

▲**방예원(13회)**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판사에 임관돼 전주법원장, 광주·대구·서울고등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다. 평생 공정하고 청렴한 법관으로 존경받음으로써 모교 명예를 크게 높였다. 퇴임 후에는 강직한 재야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1992년 법의 날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 등 한국 사법의 독립과 발전, 법의 공정집행에 많은 공헌을 했다.

▲**김종철(17회)** 만주 건국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 교수, 사대학장 등으로 장기간 재임했다. 한국 학술원 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전북 지역 사립대학인 우석대학교 총장에 취임해 후학을 양성하는 등 평생 교육분야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모교 명예와 위상을 높였다.

▲**이철승(19회)** 고려대를 졸업한 뒤 곧바로 정계에 투신, 광복 직후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이끌면서 전국학생총연맹의 대표의장과 반탁 전국학생총연맹의 중앙위원장을 맡았다.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에 학생대표로 참석했으며 1954년 전주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한 이래 제 3, 4, 5, 8, 9, 10, 12대 등 7선 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 및 신민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정계 은퇴 후 자유민주연맹 총재,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상임의장, 서울평화상 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정치계 거목으로서 조국 건국과 민주 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모교 명예와 위상을 드높였다.



김석환 동문



임남수 동문



방예원 동문



김종철 동문



이철승 동문

▲**송경진(19회)**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전주에서 송외과 의원을 개원하여 의료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했다. 제5대 모교 총동창회장에 취임하여 회칙 개정을 통한 합리적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재)전고·북중총동창회장학회 초대 이사장을 맡아 사재 1억원을 쾌척함으로써 장학기금 조성 초석을 다지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송경진 동문

▲**송삼석(23회)**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당시 시대적으로 기업창업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주)모나미를 창업, 국내 문구산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했으며 일본·동남아 등에 문구를 수출, 외화 획득 성과를 거두는 등 경제발전에도 크게 공헌했다. 제7대 재경동창회장을 맡아 동문 친목과 교류를 통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다.



송삼석 동문

▲**박권상(23회)** 서울대를 졸업한 뒤 합동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 세계통신 정치부장,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1980년 독재와 민주가 충돌하던 와중에서 군부 제5공화국에 의해 강제 해직되는 시련도 겪었다. 민주화가 복원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지냈다. 평생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언론문화와 언론자유 창달 및 신장에 힘썼고 사회정의 구현에 온몸을 바친 강직한 언론인의 전형으로서 모교 명예와 위상을 진작시켰다.



박권상 동문

▲**서정상(24회)**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후 모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은 뒤 전북대 교수와 원광대·숙명여대 강사를 지냈다. 1964년 교육보국 신념 속에 학교법인 동산학원을 설립, 육영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뒤 1979년에는 우석여자대학교를 설립해 초대 학장에 취임했다. 대학 설립 이전인 1972년 지역언론사인 전북일보사를 인수해 1977년 사장에 취임했다. 평생 인생의 좌표였던 육영사업과 언론문화 창달에 힘썼다. 이후 여자대학을 종합 사립대학으로, 또한 전북일보를 지역 대표언론으로 육성 발전시켰다. 제4대 모교 총동창회장을 맡아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특히 1954년부터 모교 후배를 돕는 장학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이는 모교 총동창회 장학회 설립 이전 사재를 털어 후학양성에 힘쓴 첫 사례였다. 이같은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국민훈장 봉황장, 석류장, 모란장 등을 수상했다.



서정상 동문



박만용 동문

▲**김선홍(28회)** 2004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에 프로필·공적 게재.

▲**박만용(29회)** 전남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하여 주민 보건관리와 지역사회에 공헌했다. 제9대 재경동창회장으로서 모교 발전과 동문들의 친목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남신 동문

▲**이남신(39회)** 육군사관학교 23기 졸업 소위로 임관한 뒤 중장으로 기무사령관을 지냈으며 대장으로 진급, 3군 사령관을 역임했다. 밀사봉공의 정신으로 국가수호에

기여했으며 국국의날 기념행사에서 전군 제병 지휘관으로 임명돼 전군을 지휘함으로써 전 동문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모교 명예를 드높였다.

▲전병관(65회) 전고 재학시절 국내 역도선수 중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 52kg 급에서 은메달을 딴 후 1990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 1991년 세계선수권 우승에 이어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56kg 급에서 한국 역도 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따내 온 국민에게 성취감과 긍지를 고양시킴으로서 모교 명예를 크게 드높였다.



전병관 동문

2000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유청(13회) 모교 교사, 교감, 교장을 역임한 뒤 정계에 입문,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 지역구로 당선된 뒤 제5, 6대 잇달아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됐고 이어 제8대에서는 신민당 전국구 후보로 당선됐다. 이승만 독재와 군부 독재 시절 야당인 신민당 정무위원과 전당대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중진 정치인으로 활약하면서 모교 명예를 빛냈다. 제6대 총동창회장을 맡아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유청 동문

2001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이철승(19회) 1999년 '전고를 빛낸 사람들에 프로필·공적 게재.

2002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박권상(24회) 1999년 '전고를 빛낸 사람들에 프로필·공적 게재.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강동석(34회) 경희대 졸업 후 제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해운항만청장,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 이사장, 인천 국제공항공사 초대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공직을 떠난 후 인천 세계도시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공헌, 모교 명예를 빛냈다. 소신있고 일밖에 모르며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진 강직한 공직자로 정평 났다.



강동석 동문

▲전철환(34회) 서울대 상대 재학중인 1960년 고시 행정과에 합격, 졸업과 동시에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76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해 1997년까지 후학양성에 힘썼다. 경제 민주화와 구조개혁에 앞장서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평소에 보여주었다. 1998년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하여 외환위기 수습과 함께



전철환 동문

중앙은행 위상강화에 힘쓰는 등 국가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모교 명예를 크게 빛냈다.

2003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신건(36회)**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제16회 고등고시 사법고시에 합격,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 지검장, 법무부 교정국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광주 고검장, 법무부차관 등 요직을 거쳤다. 이후 국가정보원 차장과 원장을 역임했다. 2009년 4월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돼 제18대 국회에 진출해 모교 명예를 빛냈다. 제13대 총동창회장을 맡아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신건 동문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송창진(31회)**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뒤 전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주민 건강관리에 기여했다.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을 비롯, 전북지구 JC 회장, 새마을 운동 전북회장, 국제 라이온스협회 309 F 지구 총재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와 모교발전에 공헌했다.



송창진 동문

2004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김선홍(28회)** 기아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공장장, 이사, (주)기아기공 사장, 기아자동차 사장, 기아그룹 회장을 역임했다. 대한 표준협회 회장, 생산기술연구원 이사장, 기계공업진흥회 회장, 전국 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지냈다. '몽고 신화'를 일군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부로 한국자동차 산업을 주도하여 공업 입국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한국을 경제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 전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였다. 금탑·철탑 산업훈장, 한국경영대상 등 다양한 수상경력이 김동문의 공헌을 입증해준다.



김선홍 동문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이강국(40회)**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헌재연구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 행정처 조사국장, 부산·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면서 올곧은 법관정신으로 사법발전에 공헌, 모교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2019년 전주교·북중 총동창회장에 선임돼 동창회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이강국 동문

2005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진념(35회)** 1962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물가정책국장, 공정거래실장, 차관보를 지냈다. 이어 해운항만청장, 경제기획원 차관, 동력자원부 장관, 노동부 장관, 기아그룹 회장, 기획예산처 장관, 재경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다. 오랜 기간 경제부처 장·차관을 지내면서 국가경제의 획기적 발전에 이바지, 전고인의 자부심을 드높였다. 특히 용담댐 건설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앞장섰으며 모교 본관 건축지원 등에도 힘써 지역 발전과 모교 사랑의 귀감이 되었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과 청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진념 동문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장명관(27회)** 1958년부터 외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외교부 심의관, 주 세네갈 대사, 주 스페인 대사,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하면서 국위선양에 공헌했다. 공직 퇴임 후 (주)부영의 고문을 맡아 모교 기숙사 건립을 적극 지원해 모교 발전에 앞장섰다.



장명관 동문

▲**김광호(39회)**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주)홍건사 대표이사를 맡고있는 김 동문은 전주 문화원장,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전북애향운동본부 부총재를 맡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전주월드컵지원협의회장과 전북 태권도협회장을 맡아 전주 월드컵 대회와 무주 태권도공원을 지역에 유치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밖에 모교 야구부 합숙소 건립을 비롯해 (재)전고 장학기금 조성과 5년간 모교 우수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남다른 모교 사랑을 실천해왔다. 특히 제 16대 전주교·북중 총동창회장으로서 개교 100주년 기념 각종 사업과 행사를 총괄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광호 동문

2006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조세형(27회)** 서울대학교 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언론계에 들어가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이후 4선(제 10, 13, 14, 15대) 국회의원과 주 일본대사를 역임했다.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을 맡기도 했다. 언론인과 정치인으로 한국 언론과 정치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외교관으로서 국위 선양에도 헌신하면서 모교 명예를 드높였다.



조세형 동문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이용오(40회)** 한국전력공사 동서발전 사업단장과 한국동서발전(주) 사장을 지냈다. 한국전력공사와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에 도서와 책장을 기증하고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남다른 모교 사랑을 실천했다.



이용오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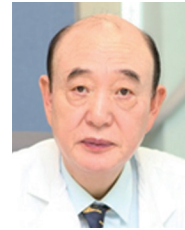
▲**박재윤(42회)** 1968년 서울법대 재학중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 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전주·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광주고법 부장판사를



박재윤 동문

거처 대법관을 역임했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현명한 판결로 명성을 떨치며 사법부 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모교와 동창회 명예를 드높였다. 제15대 재정동창회장을 맡아 동창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이양근(44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전북대학교 병원장, 전북대 대학원장, 대통령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의과대학 교수로서 각종 학술연구 활동과 의학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의학계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 모교 명예를 빛냈다.



이양근 동문

2007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김원기(32회)**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한 뒤 정치부 기자와 조사부장 등을 역임하며 정론직필로 언론계에 족적을 남겼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10, 11, 13, 14, 16, 17대(이상 6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특히 제17대 국회에서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직을 수행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국회 위상제고에 공헌했다. 전북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앞장서 모교와 동창회의 위상을 높였다.



김원기 동문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허진규(36회)** 국내최초 벤처 기업인 일진전기공업을 창업한 뒤 공업용 다이아몬드 및 중전기 분야 회사를 잇달아 설립, 기술혁신을 통한 전기부품 국산화와 PCB(인쇄회로기판) 전해동박 기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임직원 2천명에 달하는 일진그룹회장으로서 기술혁신과 첨단 전자산업 발전을 통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였다.



허진규 동문

▲**김민철(50회)** 전주 예수병원 의사와 병원장으로 재임하면서 20여년간 국내외에서 헌신적인 의료구호 봉사활동을 통한 참다운 인술 구현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모교의 명예를 높였다. 르완다 난민구호 의료팀 단장으로 현지에서 파견돼 활동했으며 국제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나이지리아에서 의료선교를 펼치는 등 국경을 초월한 의료활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김민철 동문

2008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이연택(32회)** 1965년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1981년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올림픽조직위원회 제2사무차장을 겸임하면서 체육계와 인연을 쌓았다. 이후 총무처 장관, 노동부 장관을 거친 이 동문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2002월드컵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2002년 제34대 대한체육회장으로 선출된 이 동문은 2002한·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2008년 대한체육회장에 재



이연택 동문

선됐다. 이 동문은 장관과 체육회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해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또한 재경 전북도민회장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으며 총동창회장을 맡아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앞장섰다. 이어 2019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이규하(35회)** 독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평생 후학 교육과 연구에 힘썼다. '서양사회 분석' 등 많은 저서를 펴냈으며 하버드 대 1급 연구교수와 교육부 교과서(서양사) 심사위원장을 지내는 등 모교 명성을 높였다. 운장학원을 설립해 불우학생 교육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역저인 '서양사의 심층적 이해'는 35년에 걸쳐 저술한 서양 사학계의 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이규하 동문

▲**이현수(40회)** 모교 동창회 사무처장과 모교 야구부 후원회 명예회장 및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4년 동안 재경 동창회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동문 가족음악회, 미술전람회, 산악회, 골프회 등 각종 모임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동문화합 산파역을 해냈다. 학교 발전기금 조성 and 재경 동문들의 숙원이던 사무실 마련에도 열정을 쏟았다.



이현수 동문

2009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조정남(37회)** 1966년 유공에 입사한 뒤 42년간 국내 굴지 기업인 SK의 변화와 성장을 주도했다. SK텔레콤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통신기술 발전과 세계적인 기술산업 수출로 국가경제 성장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모교 명예와 전고인의 자부심을 드높였다. 조 동문은 SK텔레콤 통신센터 전주지역 설립에도 앞장서는 등 고향 발전에 기여했으며 재경 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동창회 발전과 모교에 대한 시설지원 및 후배에 대한 특강 등으로 모교사랑을 실천했다.



조정남 동문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조창희(30회)**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목표 해양대 교수와 학장, 한국 박용기관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해양 기술인력 양성과 국가 해양기술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모교와 동창회 명예를 높였다.



조창희 동문

▲**정교관(34회)**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정 동문은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림농원 대표를 맡기도 했다. 청년시절 4-H, 새마을운동 등 농촌 부흥에 앞장서 지역발전에 기여했고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장을 맡아 한국 농촌 경제 부흥을 이끌며 모교와 동창회 명예를 높였다.



정교관 동문

▲**김방철(43회)** 고려대 의대를 졸업, 한국 의사협회 부회장과 신신의원 원장을 맡은 김 동문은 평소 의료기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민주평화통일 자문위 심사위원으로 남북의료협력 교류를 통한 국위 선양에도 앞장, 모교와 동창회 명예를 빛냈다. 또한 모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장학금 및 복지시설 지원, 노송 식재 등을 통해 모교 발전에 기여했다.



김방철 동문

2010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유재신(24회)** 모교인 전주북중 교사로 출발하여 전주고 교사, 교감, 교장과 전북 교육청 장학관, 제 7, 8대 전북도 교육감을 역임하면서 평생을 후학양성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했으며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는 등 모교사랑과 동창회 명예를 드높였다. 특히 모교 교장 재직중 1980학년도 졸업생 90%를 명문대학에 입학시켜 명문고로서의 위상을 떨쳤으며 대강당 신축 준공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 큰 발자취를 남겼다.



유재신 동문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정운기(36회)** 목포, 제주, 김포 세관장을 비롯해 주 홍콩 총영사관 영사, 주미 대사관 참사관, 한국 관세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관세 행정과 외교발전에 공헌, 녹조 근정훈장과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해 모교와 동창회 위상을 높였다. 제 12대 재경동창회장을 역임하며 동문 화합과 동창회 발전에도 기여했다.



정운기 동문

▲**이희연(42회)** 화학공학 박사로 고교 교사를 거쳐 서해 공대 교수, 군산대 교수, 군산대 총장을 역임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동창회 발전에 헌신했다. 군산대 총장 재임시 지역중심대학 총장 협의회장에 선임돼 산학협동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도 공헌했다.



이희연 동문

2011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임승래(27회)** 전주 북중 교사로 출발, 도내 중·고교 교사, 교장과 민선 초대 전북 교육감을 역임하면서 평생을 후학양성과 교육발전에 바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는 등 모교 명예와 위상을 크게 높였다. 또 모교 총동창회 상임고문을 맡아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임승래 동문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김홍규(44회)** (주)아신 회장으로 이 회사를 물류 유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켰으며 한국유통기업 육성발전 공로로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해 모교 명예를 높였다. 특히 2019년 전주고·북중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당해연도에 재경 동창회장을 맡아 동문



김홍규 동문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기금 모금과 행사 추진에 크게 기여했다.

▲**김희수(48회)** 전북도 의회 3선 의원과 도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모교 명예와 위상을 높였다. 동창회 사업과 행사 등에 적극 참여 지원함으로써 동창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김희수 동문

2012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강동석(34회)** 2002년 '전고를 빛낸 사람들'에 프로필·공적 게재.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김성수(42회)** 재미 (주)밀란무역 회장으로 미국 동부지역 전고·북중 동창회를 창립하여 회장을 역임했으며 미주 동문은 물론 미국을 방문하는 동문들에게 형제와 같은 동문애를 발휘하는 등 동문 화합에 앞장서고 모교 명예를 높였다. 김 동문의 수상은 해외 동문 최초의 영예이다.



김성수 동문

▲**허광열(50회)** 전주 허병원 원장으로 지역사회에서 신경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동문들과 가족들에게 성실한 진료는 물론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베푸는 등 칭송을 받았다. 10여년간 총동창회 동문 바둑회장을 맡아 동문 화합에 공헌했으며 경북중·고와 친선 바둑 교류전에도 헌신적으로 기여해 모교와 동창회 명예를 높였다.



허광열 동문

2013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정동영(48회)** 문화방송(TV)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뉴스 데스크 메인 앵커로 활약하며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했다. 이후 정계에 투신하여 제 15, 16, 18, 20대 국회의원과 통일부장관, 열린우리당 의장, 대통령민주신당의 대통령후보를 지냈다. 또 민주평화당 대표를 역임했다. 통일부장관 재임시 개성공단을 설립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 모교의 명예와 긍지를 높였다.



정동영 동문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황호연(36회)** 대호타일 사장과 회장, 대호레포츠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한국의 세라믹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공헌했으며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각종 행사에 각별한 지원으로 동창회 발전에도 앞장섰다.



황호연 동문

▲**김의신(37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융합기술대학원 교수와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350여편의 암 연구 논문 발표와 의학교과서를 저술한 세계 핵



김의신 동문

의학 분야 권위자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모교와 동창회 명예를 드높였다. 미국 핵의학 의사회장과 한인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성용(51회)** 제과점으로 국내 최고(最古) 기업인 군산 이성당 제과(1945년 개업) 가업을 이어받아 (주)대두식품을 설립 운영하면서 건실한 식품 산업을 육성, 미주·유럽·동남아 등지에 수출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매년 각종 행사에 적극 협찬해오고 있으며 10개기 동문 체육대회 등 동문 화합에도 앞장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성용 동문

2014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이강국(40회)** 2004년 '전고를 빛낸 사람들에 프로필·공적 게재.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김영식(37회)** 미국에서 활동한 지리학자·자유기고가로서 미국의 한국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잘못 표기된 것을 지적, 버지니아 주 의회에 '동해' 병기의 안을 제출하여 2014년부터 '동해'를 병기하는 지도(교과서)로 개정토록 해 국위선양과 함께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였다.



김영식 동문

▲**신호근(46회)**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와 부총장을 역임했다. 치과대학 설립과 미국 오르간 대, 중국·일본 치과대학회와의 교류로 한국 치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베트남 등 국내외 저소득층 구순구개열 수술 봉사 등으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였다.



신호근 동문

▲**나종팔(48회)** 25년 동안 범양, 현대상선 1등 항해사 및 선장 등 해상활동을 했으며 인천 도선(주) 대표이사, 한국도선사협회장과 국제 도선사협회 부회장으로 2016년 세계 도선사협회 총회 서울 유치 등 한국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도선사협회 장학사업을 비롯해 심장병 어린이와 불우계층 돕기 등을 펼쳐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였다.



나종팔 동문

2015년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정남식(47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교수로 30여년간 봉직하면서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거친 의료계의 거목이다. 한림원 정회원, 보건복지부 심뇌혈관 관리위 부위원장, 국민 고혈압사업단장 등을 맡아 한국 의료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모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대통령 주치의를 맡아 활동했다.



정남식 동문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하경철(34회)**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이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 인사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무료 변론에 헌신했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맡아 인권 백서를 발간하는 등 국가 민주화 발전에 앞장서 모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기도 했다.



하경철 동문

▲**최병균(41회)** 전북 완주군 송광초등학교 교장과 무주군 교육장 등을 역임하며 방과 후 학습제도로 사교육비 절감과 무상급식 제도를 선도하는 등 교육계에 헌신봉사하며 교육발전과 인재 육성에 앞장서 모교 명예를 높였다. 전북도 교육위원회 의장과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수석 부의장, 전북도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총동창회관 건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다.



최병균 동문

2016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김춘진(46회)** 치과의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제 17, 18, 19대 3선 국회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한센인 지원 등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본사 전북 이전과 새만금방조제 공사 추진에 기여했으며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확보해 모교 도서관 신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모교 명예를 드높였다.



김춘진 동문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오복동(34회)** 1964년 판사로 법조계에 투신하여 대전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감자의 교정과 교화, 아동학대 예방, 소외된 이웃의 인권보호와 재활동 등 을 도왔다. 또한 대전지역 동문화합과 동창회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장학회 이사로 재임하면서 총동창회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오복동 동문

▲**서하진(45회)**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한 뒤 전북지방 세무사회 분회장, 광주지방 세무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사재 3억원을 출연하여 '거암장학회'를 설립, 모교 재학생 및 전주시내 고교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매년 스승의 날이면 재학 당시 모교 은사들을 초청해 20년 넘게 훈훈한 사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평소 봉사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한편 (재)전고장학회 감사를 역임하면서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에 공헌했다.



서하진 동문

▲**김윤근(47회)** 일진소재산업(주) 대표이사, 일진 머터리얼즈(주) 대표이사·CTO, 일진전기 CTO, 일진전기 기술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화섬용 실패인 '알루미늄 합금 보빈'을 국산화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얇고 성능이 뛰어난 리튬이온 2차 전지용 전해동박을 연구개발,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국가경제와 지역사



김윤근 동문

회 발전에 공헌하고 모교 명예를 높였다.

2017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서거석(50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하면서 직선제 총장선거를 통해 전북대학교 제 15, 16대 총장을 역임했다.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회장, 전북발 전협의회 의장, 미국 프린스턴대와 일본 도쿄대 객원교수 등을 지냈다. 전북대 총장에 재임하면서 로스쿨을 유치하고 세계적인 규모의 연구소를 잇따라 학교에 유치했으며 ‘잘 가르치는 대학’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전북대를 전국국립대 최상위권의 명문 반열에 올려놓아 전북의 자존심을 높이고 모교 명예를 크게 빛냈다. 또 모교 동창회 상임부회장을 맡아 개교 100주년기념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는데 앞장서는 등 동창회 발전에도 큰 공을 세웠다.



서거석 동문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소종섭(47회)** 초포전자기기(주)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재경동창회 운영위원, 사무총장, 상임부회장을 맡아 재경동창회 가족음악회 및 동서화합음악회를 통한 총동창회 장학금을 조성하고 재경동창회 동창회관과 기금 조성에 앞장서는 등 동창회 운영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소종섭 동문

▲**김동수(51회)** 전북지역 기업인 군산도시가스(주) 회장과 (주)동우 회장, (주)참프레 회장을 맡아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모교 명예와 위상을 높였다. 군산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상임위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군산·익산연합회 회장 등을 맡아 활발한 사회 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어려운 이웃을 지원,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도 앞장섰다. 또한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아 모교와 총동창회 행사에 기념품과 광고 등을 협찬하여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다.



김동수 동문

▲**오상현(56회)** 축협 중앙회 근무에 이어 ‘목우촌 명가’를 창업 운영하다가 ‘현대옥’ 프랜차이즈를 창업, 전국에 160여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2017’에 선정되는 등 모교 명예를 높였다.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숙사에 학생 부식을 제공했으며 총동창회 각종 행사에 기념품과 광고협찬을 적극 지원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오상현 동문

2018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윤석정(34회)** 포항 및 목포지방 해운항만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국내 해운업 발전에 힘썼으며 공직 퇴임 후에는 (주)국제해운 대표이사를 맡아 우수한 기업으로 이끌었다. 또한 지역언론인 전북일보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해 언론문화 창달에 힘쓰는



윤석정 동문

한편 (사)신석정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구름재 생가복원추진위원장, 전북애향 운동본부 부총재 등을 맡아 폭넓은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 모교 명예를 드높였다. 총동창회 부회장과 자문위원을 역임,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다.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임명환(28회)** 무주군수를 비롯해 진안군수, 완주군수와 민선 완주군수를 역임하면서 무주 스키장 유치, 고산 지역 휴양림 및 모악산,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단지 조성, 도립미술관 유치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목우회 회장, 한국 시니어골프협회 회장, 순수봉사단체인 보람회 회장 등을 맡아 활동 했으며 20여년간 총동창회 부회장, 운영위원, 자문위원, 고문 등으로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모교 개교 100주년 계기로 발간된 '전주고·북중 100년사' 편찬위원장으로서 발간 작업에 몰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명환 동문

▲**이길홍(45회)**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검역견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축산업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퇴임 후에는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주)케이엘에스, (주)모두코퍼레이션을 우수한 기업으로 이끌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 및 근정 포장을 수상하여 모교 명예를 높였다. 재경동창회 부회장으로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길홍 동문

▲**정성후(53회)** 30여년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후학 양성, 활발한 임상 연구, 정성 어린 환자 진료로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하면서 세계 100대 의료전문가에 선정되어 모교의 명예를 높였다. 전북대학교 병원장 재임 중에는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어린이 병원과 호흡기 전문 질환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역 의료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도 기여했다.



정성후 동문

▲**김한주(57회)** 전북 내 신세계병원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정신질환 예방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포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350여 차례의 정신건강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모교 명예를 드높였다. 지역사회 장학금과 모교에 장학금 지급 등 지속적인 교육봉사,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했다.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김한주 동문

2019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황은규(32회)** 전주 축협 이사와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 모교 명예를 빛냈다. 동기회 회장직을 맡아 활동했으며 모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장학기금으로 거액을 쾌척하여 기금 조성에 앞장서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황은규 동문

▲**김명곤(48회)** 연극연출가로 활동하면서 국립중앙극장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 문화관광산업 육성 발전에 힘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모교 명예를 높였다. 또한 극단 아리랑을 창단하고 영화 '서편제'의 주연배우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빛냈다.



김명곤 동문

◇전고를 빛낸 사람들 상

▲**정병규(40회)** 1988년 전주교 미국 애틀랜타 지역 동창회를 창립하여 회장을 역임하면서 북미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모교 후배들의 미국 유학 생활에 도움을 주는 등 모교사랑을 적극 실천했다. 개교 100주년 장학기금 확충에 앞장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다.



정병규 동문

▲**양승춘(44회)** 전주에서 치과의원을 개업운영하면서 전주시·전북 치과의사회장, 새전주로타리클럽 회장 등을 맡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모교 명예를 높였다. 모교 총동창회 자문위원으로서 개교 100주년 장학기금 확충에 기여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공헌했다.



양승춘 동문

▲**김재한(44회)** 전주교·북중 미국 남가주 동창회 이사장을 역임한 뒤, 전주교 북미주 동창회 창립 발기인을 맡아 북미주 지역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다. 개교 100주년을 장학기금 확충에 앞장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빛냈다.



김재한 동문

▲**이선희(46회)** 김제 청하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교직을 마감했다. 41년여 동안 교육자로 헌신하며 국민교육에 이바지한 공로로 황조근정 훈장을 수상하는 등 모교 명예를 높였다. 총동창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을 맡아 개교 100주년 장학기금 모금에 앞장서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다.



이선희 동문

▲**김지형(52회)** 1984년부터 2011년까지 각급 법원 판사 및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 동문으로서 법조계를 퇴직한 후엔 규제개혁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분쟁 조절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 명예를 빛냈다.



김지형 동문

▲**여태명(52회)**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문화예술학과 교수로 재임하면서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세계서예비엔날레 조직위원과 집행위원, 한국민족서예인협회 회장 등을 맡아 다양한 활동으로 모교의 명예를 높였다. 특기 근대 한글서체인 '민체'를 창안하고 2018년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표지석을 제자(題字)하는 등 서예대가로 활동해 모교 동문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남민우(57회)** 다산 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벤처기업 활성화와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강국 실현에 공헌함으로써 모교 명예를 높였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 재단

이사장,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등을 맡아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는 한편 모교 개교 100주년 장학기금 확충해 앞장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임동욱(63회) (주)유니온 시티를 설립해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하면서 전주시 중소기업연합회장을 맡아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 모교 명예를 높였다. 모교 동창회 부회장으로서 개교 100주년장학기금 확충에도 힘쓰는 등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여태명 동문



남민우 동문

추서(追敍)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고(故) 이종익(43회) (주)삼익유가공을 설립,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한국초등테니스연맹 회장과 화서학회 이사장으로서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에 모범을 보였다. 제13대 재경 전고·북중 동창회 회장을 역임하며 제1회 재경동문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와 동서화합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모교 발전기금 기증과 총동창회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모교와 총동창회 명예를 드높였다.

※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재경동창회 추천에 따라 자랑스러운 전고인 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광호 제15대 총동창회장) 심의를 거쳐 이종익 동문 1주기를 기해 2016년 12월15일 추서됐다.



임동욱 동문



이종익 동문